



기보배 “저 싱글이에요...” 특특 입담

**양궁 해설위원 특별한 외출... 오진혁과 결별 쿨하게 털어놔
“방송하며 더 배워”... 다음달 9일부터 국가대표 선발전 참여**

‘신궁’ 기보배(26·광주시청)의 특별한 외출이었다.

기보배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활이 아닌 마이크를 들었다. 안방에서 활약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지만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선수가 아닌 KBS 양궁 해설위원으로 인천을 찾은 것이다.

남다른 배경으로 올림픽 금메달까지 목에 건 선수답게 기보배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기보배는 “처음에는 긴장도 됐는데 옆에서 잘한다고 해주시고, 자신감도 생겨서 생각보다 잘 할 것 같다. 마지막 날에는 긴장이 풀려서 말할 수도 있고 방송 중에 구박을 듣기도 했다.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줘서 더 즐겁게 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양궁을 더 배우게 된 좋은 공부가 됐다는 게 기보배의 설명이다.

기보배는 “경기장 안에서만 양궁을 보다가 밖에서 지켜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였다. 저 상황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양궁을 더 많이 배우고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특영(25·광주시청)이 뒤편 여자 대표팀이 단체전 금메달을 확정지었을 때 기보배는 방송에서 울먹이기도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감동하기도 했다.

기보배는 “이특영은 같은 팀에서 뛰고 있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후배다. 출전권을 포기한 선배를 대신해 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선수보다 더 어깨가 무거웠을 것이다. 그런 마음들을 알아서 잘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그 자리에 서봤기에 울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술집담백한 해설도 화제가 됐다. 런던 올

림픽에서 ‘신궁 커플’로 화제가 됐던 오진혁과의 결별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기보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길이 쏠린 것이다. 오진혁은 지난 2월 결혼을 했고 기보배는 싱글이다.

“애기가 많이 나왔는데 괜찮다.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정리했고 훌륭한 동료이다.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언급했던 것 같다”며 웃은 기보배는 “아직도 돌이 커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걱정이다. 나도 시집은 가야 할 것 아닌가. 싱글이라고 소문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고 특특 튀는 입담을 과시했다.

특별한 외출을 끝낸 기보배는 이제 다시 선수로 돌아간다. 잠시 놓았던 태극마크를 향해 다시 활시위를 겨누야 한다.

박재순 광주시청 양궁팀 감독은 “10월9일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이 진행된다.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힘든 과정이 시작된다. 잠시 훈련을 쉬기는 했지만 워낙 기본이 좋은 선수라 잘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메달 이다~” 28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 한국과 대만의 경기에서 6-3으로 승리,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銀 같은 金... 金 같은 銀

야구, 대만에 6-3 진압 승... 배드민턴 이용대, 자력정지 파동 이겨낸 무대 아쉬운 패

금메달 같은 은메달과 씁쓸한 금메달이었다. 한국의 골든데이였던 28일 밤 스포츠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빅 이벤트가 있었다. 한국 스포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야구대표팀의 결승과 이용대의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결승 결승이 있었다.

야구는 전승으로 대회 2연패에 성공했고 이용대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승자보다 패자에게 더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다.

선수 선발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은 야구 대표팀은 대회기간에는 선수들의 잇단 말실수로 눈총을 샀다. 최고를 향한 도전 무대라기보다는 ‘병역 혜택’을 위한 생존 무대라는 인상도 지을 수 없었다.

이런저런 논란 속에서도 야구는 승승장구했다. 경계 대상이던 대만을 8회 10-0 콜드승으로 제압하는 등 금메달을 예약한 것 같았다. 그러나 삼페인은 너무 일찍 터졌다. 선수단 분위기는 예선전부터 이미 금메달이었다. 방심했던 대표팀은 다시 만난 대만을 상대로 결승에서 고전을 했다.

패자가 된 이용대는 아쉽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용대(26·삼성전기는 유연성(28·수원시청)과 출전한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모하마드 아흐산-헨드라 세티아완(인도네시아)에게 1-2(16-21 21-16 17-21)며 단체전 우승에 이은 2관왕 꿈을 접었다.

2세트 초반적으로 경기장은 ‘대한민국’ 물결이었다. 홈

에서 치러진 경기였기에 우승이 더 간절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실수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자력정지 파동”까지 겪으며 어렵게 선 무대, 이용대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용대는 손을 들어 관람석을 향해 박수를 보내며 열광적인 응원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팬들은 최선을 다한 두 선수에게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다.

“응원을 해준 분들에게 죄송하다. 아쉽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한 이용대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준우승이다. 욕심을 내서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 같다. 모든 선수는 금메달을 꿈꾸고 그것을 목표로 한다. 꼭 한번은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은메달도 받고 싶다”고 애써 아쉬움을 달랬다.

군복무를 끝내고 치른 첫 경기, 유연성도 “정상을 향한 최선의 도전”을 얘기했다. 유연성은 단체전 금메달을 뺀 23일 상무에서 제대했다.

유연성은 “민간인으로 뛰는 첫 경기라서 힘이 많이 들었다. 차분하게 하지 못해 용대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아직 우승을 못 한만큼 우승이라는 목표가 남아있다. 목표를 향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직 우리에게 우승이라는 목표가 남아있다”는 두 은메달리스트의 말이 더 깊은 울림으로 남은 28일 골든데이였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축구, 태국 넘으면 ‘금’ 보인다

이광종號 오늘 준결승... 태, 무실점 전승 ‘최대 고비’

이광종호가 ‘속적’ 일본을 꺾고 28년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한 7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태국만 넘으면 우승을 눈앞에 두게 된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30일 오후 8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태국을 상대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 4강전을 치른다.

5경기 무실점에 10득점. 지금까지의 성적만 놓고 보면 한국의 완승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보이지만 경기 내용과 과거 아시안게임 도전자들을 돌이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4강의 악몽’ 그리고 태국=‘아시아 뎡주’를 자처하는 한국은 1986년 서울 대회 이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단 한번도 따내지 못했다.

1990년 베이징 대회부터 2010년 광저우 대회까지 6개 대회에서 5번을 결승까지 가 보지도 못한 채 준결승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쯤 되면 ‘4강의 악몽’이라고 부를만 하다.

준결승에서 한국의 뒷덜미를 잡은 것은 이란,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강호들이었다.

그런데 딱 한 번, 축구팬들이 ‘두 수 아래’로 여기는 동남아시아 팀에게 4강도 아닌 8강전에서 분패한 적이 있다. 1998년 방콕 대회에

서 한국은 홈팀 태국에게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로 저 짐을 싸야 했다.

◇밀집수비 이제는 벗겨라=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을 상대하는 상대팀의 전략은 언제나 ‘선수비 후역습’으로 엿비슷했다. 한국은 상대 진영을 90분 내내 휘젓고도 좀처럼 골을 뽑지 못하다 상대 역습에 실점해 금메달 꿈을 접어야 했다.

이번 대회도 같은 양상이다. 한국이 넣은 7골은 후반에 나왔고 이중 대부분이 상대의 체력이 빠져 수비 조직력이 허술해진 막판에 집중됐다. 그러나 토너먼트에서 중국과 요르단을 모두 2-0으로 꺾고 4강에 오른 태국은 이전에 한국이 상대한 팀들 보다는 한 층 완성도 높은 수비 전술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일본을 경기 종료 직전 얻은 페널티킥 골로 겨우 꺾었다. 밀집수비를 깨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다시 한번 ‘4강의 악몽’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김신욱 돌아올까=밀집수비를 예상한 이 감독은 이를 파헤치기 위한 카드로 김신욱(울산 현대)의 ‘높이’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공격수들과 ‘합’을 몇 번 맞춰보지도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종아리 타박상을 입어 가

동이 중지됐다.

이 감독은 한일전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신욱을 4강전에 준비를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신욱도 “(부상이) 70% 정도 나왔고 전체적인 몸 상태는 좋다.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략상 태국에 우세한 만큼 이 감독은 이용재(V바렌 나가사키)를 ‘원톱’으로 선발 출전시킨 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후반전에 김신욱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측면 공격수로는 김영욱(전남 드래곤즈)과 한일전에서 맹활약한 이재성(전북 현대)의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연합뉴스

오늘의 아시안게임 (30일·화)

▲육상=김덕현(광주시청) 멀리뛰기, 박태경(광주시청) 110m허들(10시·아시아드주경기장)

▲볼링=최복음·박중우(이상 광양시청)·이영승(한국체대·곡성 출신) 남녀 5인조(9시·안양호계체육관)

▲축구=남자 4강전 북한-이라크(17시·인천축구전용 경기장) 한국-태국(20시·문학경기장)

▲레슬링=구학본(광주 남구청) 남자 그레코로만형 98kg 등(13시·도원체육관)